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평교보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1열왕 3,5-6 7.7-12

화답송 | 시편 119(118),57과 72.76-77.127-128.129-130(◎97 7참조)



○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

제2독서 | 로마 8,28-3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3,44-52

영성체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성가 | 입당 18 예물준비 216(217)
 영성체 499(498) 파견 21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노해영 리오바 영원한 안식을 위해
- 노해영 리오바 영원한 안식을 위해
- 홍계봉 요안나

생미사 지향

- 이경화 크리스토퍼 축일
- 최남순 미리암 수녀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은총을 위해
- 민덕미 안젤라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이흥규 요한 영육 건강을 위하여
- 성모회 회원 분들 건강을 위해서
- 데이브(Dave), 치다(Tschida) 건강을 위해서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7월 26일	정유진	민완준	이경자	민완준 이경자	유정옥 진서윤	한서희 최예준
8월 2일	백이백	김진섭	류유리	김진섭 류유리	김종선 진서윤	김수현 최예준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 오늘 2차 헌금 있습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맨하탄 성당 한인공동체를 깊이 사랑하고 언제나 기꺼이 도움을 주셨던 Dorothy Davis(75세)가 별세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7월 성령기도회 찬양미사: '성찰과 식별'

— 초청강사 Fr. 김성기 안드레아(예수회 호주관구)

일시: 7월 28일(화) 7:00PM,

장소: 산 다미아노홀

문의: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8월 2일 본당 헌혈 행사

최근 뉴욕시에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본당에서 대규모 헌혈 행사를 개최합니다. 교우분들의 적극적 동참을 바랍니다.

시간: 9:00AM-3:00 PM. 장소: 산 다미아노홀

참가방법: 홈페이지의 양식서 작성 또는 브라이언 주임신부님을 통해 등록 양식 작성(Fr. Brian Tel. 212-736-8500 ext. 232 or bjordan@stfrancisnyc.org)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사로 인해 8월 2일 친교모임은 없습니다.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희망자 모집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8월 30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월 13일- 2027년 3월 29일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양식신청 및 제출 seoulosb@gmail.com)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2027년부터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또한 2027년 이전 세례받으신 분들은 견진성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청년피정

청년회에서 2026년 하반기 청년피정을 진행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은총을 나누는 시간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일시: 9/18(금) - 9/20(주일) (2박 3일)

장소: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참가비: 엘리버드(-7/30) \$280, 일반 \$330

신청마감: 8월 30일까지

문의사항: 929-660-4456(청년분과장 진현중 빈첸시오)

뉴욕/뉴저지 제 10차 선택 주말

: NY/NJ Choice Weekend

청년 선택 주말에서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며 관계 안에서 행복을 찾아나설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 9/5일 (토) 10:00AM

- 9/7일 (월) 3:00PM

대상: 1988 - 2004년생

청년 미혼 남녀(한국어권, 영어권)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ey Rt 206, Newton, NJ 07860

신청: www.choicenynj.com (7/20 - 8/7, 선착순 30명)

문의: choicenynj@gmail.com

917-363-0455(대표 봉사자 박지은 안나)

참가비: \$275 (\$50 non-refundable deposit)



오늘의 말씀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마태 13,45-46)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유중성 마태오 (1784?-1802)



유중성 마태오는 전라도 전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작은아버지 유항검(아우구스티노)의 집에서 자랐다. 그는 한국 천주교회 설립 직후 신앙 공동체를 이끌던 작은아버지의 영향으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1801년의 신유박해 순교자 유중철 요한과 유문석 요한은 그의 사촌 형제들이다. 신유박해 때 가족들이

먼저 체포되었고, 유 마태오 역시 어머니를 비롯해 친척들과 함께 전주 옥에 갇혔다. 그는 사촌 형수인 이순이(루갈다) 등 친척들과 함께 순교를 결심했으나, 조정은 이들에게 함경도 회령으로 유배를 명하였다. 이에 그는 국법대로 처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배지로 압송되던 중에는 사람들에게 천주교인을 처형하지 않고 유배 보낸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가 다시 전주 감영으로 압송되었다. 그는 모진 문초 속에서도 "천주교는 집안에서 전해오던 신앙입니다. 유항검 등 삼촌들이 영광스럽게 죽었으므로 그들과 같이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사형 선고문에 서명했다. 결국 유중성 마태오는 1802년 1월 31일(음력 1801년 12월 28일) 전주 '숲정' 형장에서 친척들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당시 그는 미혼이었으며, 나이는 약 18세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92, 가해, 2026. 07. 26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이미 책 전체의 예고편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1,8). 복음이 땅 끝에 이르면 사도행전이 끝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으로, 사도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에 머물렀던 시기를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는 문밖으로 나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유다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첫 신자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2,42).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설교를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말로 알아들으면서 일치가 이루어졌듯이, 여기서도 일치는 매우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4,32).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습니다.

일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지구상에 인류가 살아 온 햇수는 점점 짧아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도 이 천 년이 더 지났는데, 전쟁의 소식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상에서 많은 전쟁들은 이러저러한 구실들을 내세운다 해도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리석어서 아직도 전쟁을 하는 것 일까요, 아니면 너무 계산이 밝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까지 감수하는 것일까요. 이런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신자 공동체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찬과 기도예 전념하였다는 말은, 그들의 한마음 한뜻이 인간적 요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레오 14세 교황님의 사목 표어가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박해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5,28). 7장에서는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의 죽음을 전해 줍니다. 그러나 박해와 순교는 복음을 꺾지 못합니다. 스테파노의 순교 장면에 있었던 사울이 장차 멀리까지 복음을 전할 사도가 되듯이, 박해는 오히려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합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8,1). 이후 교회의 역사에서 되풀이해서 나타날 모습입니다.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으니, 1장 8절의 말씀대로 “유다와 사마리아”로 증인들이 퍼져 나갑니다. 8장 끝부분에는 필리포스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예언서를 설명해 주며 그에게 세례를 주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요.

저들이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5,39). 가말리엘이 최고 의회에서 한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도 세상 안에서 일치가 가능함을 증언한다는 사실은, 교회와 그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90, 2026. 07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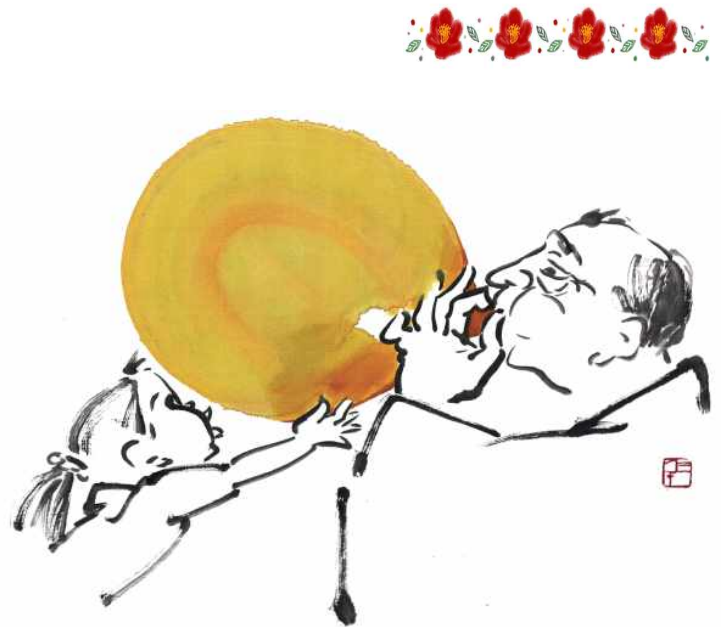


그림 특상

할아버지와 손녀 | 풍선 불기로 손녀의 탄생을 얻어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냈던 일생의 끝자락인데, 진정 세상에 남겨야 할 유산은 오직 사랑뿐임을 늦게서야 실감 나게 배웁니다. 남은 숨으로 할 수 있는 개인기(?)로는 또 어떤 것이 더 있는지, 곰곰 생각 중입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23호, 2026년 7월 26일(가해))